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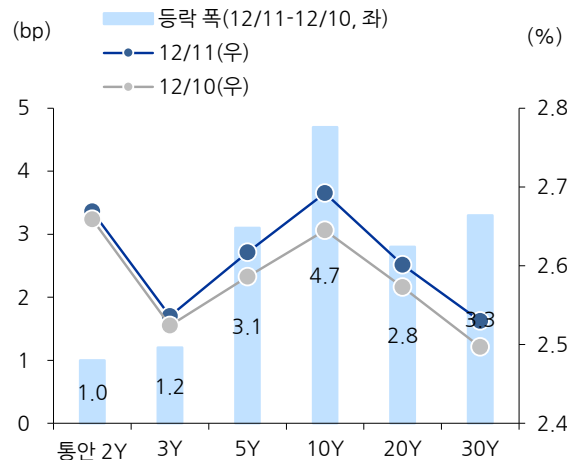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76_jhoonlee@eugenefn.com RA 유재혁_02)368-6177_dbwogur170@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톱)

	12/11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2.536%	1.2	-9.0
	한국 국고채 10년물	2.692%	4.7	-7.3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15.6	12.1	13.9
	3년 국채 선물(KTB)	106.77	-9.0	2.0
	10년 국채 선물(LKTB)	119.30	-60.0	0.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4.155%	0.9	2.6
	미국채 10년물	4.273%	4.6	9.2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11.8	8.0	5.2
	독일국채 10년물	2.126%	0.9	7.0
	호주국채 10년물	4.185%	4.6	-8.4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 추경 논란, 미 물가 대기
- 차주 국채선물 만기 앞두고 롤오버 장세가 나타남. 외국인, 국채선물 모두 순매도 하며 약세 견인. 미 CPI 발표 앞둔 경계감도 지속
- 내년 예산안 삭감된 가운데 국고채 발행도 다소 줄었지만 시장 영향 미미. 야당 원내 대표, 필요시 추경 언급 하여 약세폭 확대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
- 예상에 부합한 미 CPI에 안도. 물가 발표 직후 12월 25bp 인하 기대는 99%에 수렴. 이에 장 초반 금리 하락하였으나, 미 예산적자 확대 우려로 약세 전환
- 지난 11월 말까지 두달간 미 예산적자, +19%yoy 증가. 국방 및 헬스케어 지출액이 늘어난 여파
- 금일 ECB 통화정책회의, 미 11월 PPI 발표 등 예정

자료 출처: 연한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FX & Commodity

(단위: %, \$)

	12/11일	1D	1W	YTD
원/달러	1,432.20	0.4%	1.6%	11.2%
달러지수	106.70	0.3%	0.3%	5.3%
달러/유로	1.049	-0.3%	-0.2%	-5.0%
환율 위안/달러(역외)	7.28	0.3%	0.0%	2.2%
엔/달러	152.59	0.4%	1.4%	8.3%
달러/파운드	1.275	-0.2%	0.3%	0.2%
헤알/달러	5.96	-1.4%	-1.3%	22.8%
WTI 근월물(\$)	70.29	2.5%	2.6%	-1.9%
금 현물(\$)	2,717.28	0.9%	2.5%	31.7%
구리 3개월물(\$)	9,177.00	-0.4%	1.0%	7.2%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5.30원 상승한 1,432.2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430.90원 마감.
- 간밤 달러는 CPI 대기 심리 속 상승세를 보였고 달러-원도 전거래일 대비 +7.10원 상승한 1,434.00원에 개장.
- 외환 당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하면서 개장 직후 상승폭을 축소했으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전일 강세를 보였던 위안화도 힘을 잃으면서 낙폭은 제한. 미국 CPI 대기 심리로 오후 장에는 상승폭을 다시 키웠음.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



달러 지수 동향 및 관련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미국 CPI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강세.
- 11월 CPI 및 Core CPI는 각각 +2.7%(Y), +3.3%(Y) 상승해 시장 예상에 부합. 12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시장은 내년 속도조절에 대한 우려로 달러는 되려 강세.
- BOC도 시장 예상대로 50bp 인하를 단행했으나, 향후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리는 상승.
- 한편 전일 한 외신에서 중국 당국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등장하면서 위안화는 다시 약세 전환.
- 금일 미국 PPI 발표 예정.